

한국출판연구소 제59회 출판포럼

“한국 출판 정체된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심화”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종수)는 지난 5월 27일 급변하는 출판환경에서 출판계가 풀어야 할 현안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59회 출판포럼을 열었다. 그레파트너스의 고중언 컨설턴트가 ‘도서 판매·통계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익순 사무국장이 ‘한국 출판의 좌표와 출판계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사회는 김종수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국출판인회의 조재은 유통대책위원장, 서일대 미디어출판과 한주리 교수, 교보문고 안민성 부장이 나섰다. 한국출판연구소와 출판유통진흥원이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후원한 이번 포럼의 제2발표인 ‘한국 출판의 좌표와 출판계의 과제’를 요약, 정리한다.

한국 출판의 좌표와 출판계의 과제

우리나라 출판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체적인 출판시장은 정체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형 출판사와 대형 인터넷서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그나마 활로를 찾아가고 있지만, 중소형 출판사와 중소형 서점들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전자책을 둘러싸고 종이책 출판사와 전자책 유통업체 간에도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우리나라 순수 출판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05년 이래 최근 5년간 2005년 3조7600억 원의 시장 규모가 2009년 3조7800억원 수준(0.7%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5.8% 성장하였지만, 시장 성장력의 한계가 뚜렷하게 대두된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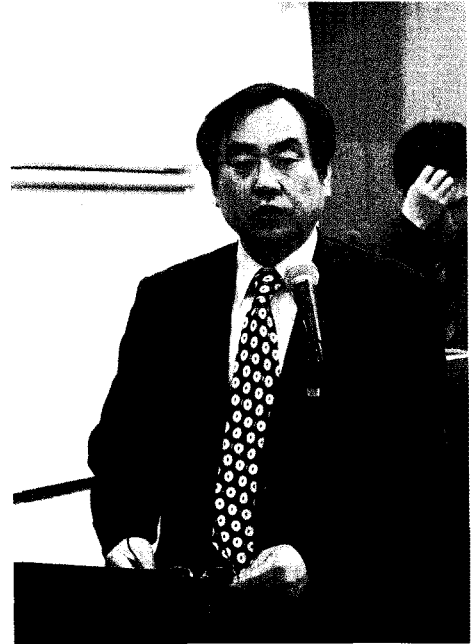
2009년을 중심으로 보면, 출판 도소매업은 2005년 대비 4.2% 감소,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특히 소매업인 일반 오프라인 서점의 감소 폭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서점의 매출 집계를 따로 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소매업(오프라인 서점)은 2009년에 4조1496억원으로 2006년 대비 2.5% 감소한 반면에, 인터넷서점은 2009년에 9834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64.1% 증가했다. 전자책 서비스 매출 규모는 2009년에 682억원으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43.0%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출판 제작업이 전년 대비 37.8% 증가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서적 임대업(도서 대여 서비스)은 2007년에 전년 대비 36.8%로 급감한 이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공시시스템 보고서를 통해서 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출판사 58개 사의 2010년도 총 매출액은 5조46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학습지가 2조5192억원(46.1%)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은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1조3130억원(24.0%), 전집 9657억원(17.6%), 단행본 492억원(7.5%), 기타 2614억원(4.8%)의 순이었다. 2007년도 총매출액 4조978억원과 비교하면 3년 동안에 전체적으로는 약 11.4% 성장하였으나 부문별로 보면 성장률에 차이가 있다. 전집 부문은 41.8%로 크게 성장하였고, 단행본은 17.1%,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는 16.2% 성장한 데 비해, 학습지 부문은 2.0% 성장에 그쳤고, 기타 부문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에 출판업 매출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8% 성장했지만,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중대형 출판사는 10.3% 성장한 데 비해 나머지 중소형 출판사는 5.6% 감소했다.

한편 출판계의 주요 정책 과제로 △도서정가제 △출판진흥기구 설립 △전자책과 종이책 출판의 상생 △저작권법과 출판 △출판산업 진흥 5개년(2012~2016) 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상황을 개선키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년 동안 출판시장은 ‘무늬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서점 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할인판매로 급성장한 인터넷서점의 매출액은 총액 1조 원을 돌파하며 출판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공룡이 되었다. 현재 구간 도서의 경우 70% 할인까지 하는 등 도서정가제가 없는 국가보다 오히려 출판시장의 혼탁이 심해졌고, 거품 가격과 극심한 할인 경쟁으로 일부 인터넷서점만 성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종수 이사장

하며 대부분의 오프라인 서점들은 폐업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시장경쟁 논리에만 함몰된 흠결 투성이의 도서정가제 운용으로 인해, 출판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출판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출판사·서점의 시장 퇴출이 강제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와 미래의 독자, 즉 국민이다.

출판진흥기구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출판인 개개인들은 저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여,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의 질을 높이고 양을 풍부하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출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수시로 요청받는 정책 논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한국출판연구소와 같은 전문 연구소의 인력을 보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며, 각 분야별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크든 작든 출판계 내부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하다고 정리했다. ☞